



민주 전남지사 후보 김영록 전 장관 선출

결선투표 62% 대 38% 장만재 후보 눌러 “본선서 반드시 승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지사 후보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선출됐다. <관련기사 4면>
김 후보는 19일 밤 발표된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 결선투표 결과, 61.92%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상대인 장만재 후보는 38.09%를 얻는데 그쳤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 후보는 지난 13~15일 실시된 1차 경선에서 40.93%로 1위를 차지해 32.5%로 2위를 한 장 후보와 18~19일 결선투표를 치렀다. 결선투표에 앞서 1차 경선에서 3위를 한 신정훈 후보가 김 후보 지지를 선언, 김 장관은 결선 투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여당의 전남지사 후보로 야당의 후보들과 전남지사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됐다.
야당은 이날 현재까지 민중당만이 후보를 확정된 상태다. 민중당 전남지사 후보는 민노총 기획실장 출신인 이성수 예비후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후보를 낸다는 원칙에 따라 인재영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김 후보는 애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당 사정에 따라 출마를 포기하자 지난 3월14일 장관 사직서를 제출하며 출마의지를 보였다. 이어 21일 “전남의 새천년 열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결선투표 결과 발표 후 김 후보는 “민주당의 본산이자 뿌리인 전남의 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른 후보들과 손잡고 본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도민과 당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인구 문제”라며 “‘일자리 지사’가 돼 전국 최고의 일자리를 창출,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남의 자산은 천혜의 자연자원, 풍요로운 농토, 친환경의 지리적 이점, 그리고 청년들”이라며 “10만 인재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전남 발전을 선도할 제2·제3의 김대중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청와대는 19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으로 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 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영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 핫라인 오늘 개설

정상회담 수행원 임종석·정의용·서훈·조영균·송영무·강경화

청와대는 19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영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6명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누가 앉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북측에서 누가 몇 명이 앉을지에 따라 남측도 거기에 맞춰 조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일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이 연결되며, 실무자끼리의 시원통화가 우선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쪽 전화 연결선의 끝은 우리 쪽은 청와

대이고, 북측은 국무위원회”라며 “정상 간 통화가 언제 이뤄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27일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두 차례의 리허설이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24일 오후에는 분과단 전원이 참여해 행사 당일 전체일정을 그대로 한번 재연하고 26일에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원을 좀 더 넓혀서 더 세밀하게 리허설을 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북측 선발대로 24일 또는 25일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리허설을 준비한다”며 “정상회담 상황도 오는 24일 관문점 남측 지역 자유의 집 3층에 개소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창사 66년 지역민과 동행 66년



무안군 몽탄면에는 한반도 지형을 닮은 영산강 느리지가 있다. 천혜의 절경을 품어 안으며 에둘러 돌아가는 물굽이는 한 폭의 산수화를 닮았다. 능수버들처럼 낭창하게 휘어진 S자 물길은 유장하면서도 부드럽다. 울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 되는 듯 깊고 있다. 저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남도의 곳곳마다 상서로운 기운이 뿜어내면 좋다. 올해 창사 66주년을 맞은 호남의 정통 일간지 광주일보도 생명을 살리는 영산강의 물줄기처럼 우리 지역과 동행하며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한다. 오늘까지 한결같이 광주일보를 성원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론직필 광주일보 66년 ▶10·11면
다시 쓰는 5·18 ▶12면
다시 부르는 임을위한 행진곡 ▶13면

창사 66주년 특집
32면 발행

경제 특집 ▶14~19면
전라도 방문의 해-고흥 소록도 ▶20면
그림편지-네팔에서 김해성 ▶24면

호남의 선택은 ‘인물과 능력’

6·13 지방선거 D-54

지역경제 등 만만치 않은 현실
신중하고 냉철한 선택 이뤄져야

6·13 지방선거가 5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저변에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선택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광주·전남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당장, 조선업 불황으로 목포와 영암 등 전남 서부권의 경기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고 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도 과거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4차 산업 혁명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전남의 새로운 비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의 현실도 쉽지 않다. 기대를 모았던 친환경 자동차 조성 사업 등이 표류하고 있는데다 아시아문화전당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이끌 선도 사업 등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군 공항 이전, 에너지 벨리 확대 등 광주·전남의 상생 공약도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지방선거에서 역량과 비전을 기준으로 냉철한 선택에 나서서 지역 민심의 역량 결집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의 전폭적 지지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지렛대 삼아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이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 뒷전으로 처했던 지역 굵직한 현안들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흐름을 지역 발전의 동력과

비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당 분열로 인해 경쟁 구도가 붕괴된 상황에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무리한 공천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당을 넘어서 ‘인물과 역량’을 선택의 기준으로 무너진 경쟁 구도를 세워 호남의 미래를 열고 호남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권 창출 불임 지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 정치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후보들을 꼼꼼히 살피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호남 유권자에게 냉철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며 “역량과 비전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호남 민심의 저력을 보여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KWANGJU BANK 50th Anniversary

“함께 이룬 50년, 같이 나눌 100년”

광주·전남의 기업인들과 지역민 모두의 뜻을 모아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탄생했습니다. 100년 은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객과 늘 함께하는 광주·전남 대표은행이 되겠습니다.

www.kjbank.com